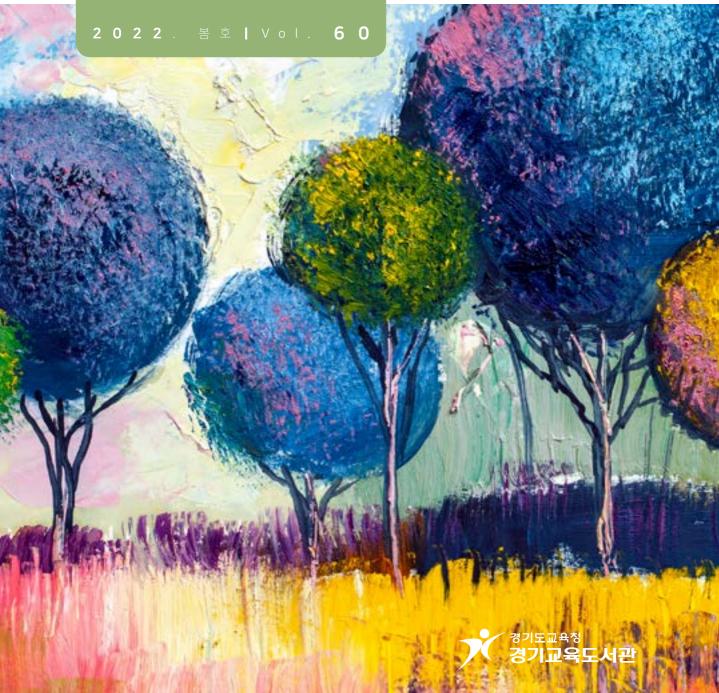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는

학생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책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교육도서관 사서들이 협력하여 발간하는 학생중심 독서정보지입니다.





발행인 신창승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처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편집장 윤영희 편집위원 이미경, 김석주, 김세희, 김용민, 노보형, 복은솔, 안선영, 이노경, 이지민, 조광현, 최아람, 현유정 전화 031-240-4084 팩스 031-245-3681 홈페이지 lib.goe.go.kr/gg 디자인 아뮤컨셉



- 04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 문 학 | 궤도의 밖에서, 나의 룸메이트에게 | 방금 떠나온 세계 | 죽이고 싶은 아이 | 밤으로의 자전거 여행
 - 인 문 | 묘사의 힘 | 사춘기라 그런게 아니라 우울해서 그런 거예요 | 스낵 인문학 | 나는 게임한다 고로 존재한다 | 청소년에게 알려주는 인문학 미래 경쟁력
 - 사 회 | 부동산 쫌 아는 10대 |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 축소주의자가 되기로 했다 | 당신은 아이가 있나요? | 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 과 학 이산화탄소로 내 몸을 만들었다고? 10대와 통하는 기후 정의 이야기 되는 작아지고 싶어한다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 교 양 | 건축은 어떻게 전쟁을 기억하는가 |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 | 미디어 읽고 쓰기 | 말을 거는 영화들
 - 교 육 | 학습 천재가 되는 11가지 공부 비결 |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는 10대에게 | 교사내전 |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 사춘기를 위한 맞춤법 수업
 - 고 전 | 이방인 | 돈키호테
 - 어린이 | 선생님, 착한 손잡이가 뭐예요? | 모두가 원하는 아이 | 왈왈별 토토 | 크리스마스 피그 | 도자기에 핀 눈물꽃 | 인류와 함께 똑똑해진 집 이야기 | 내가 모르는 사이에 |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 | 그렇게 그렇게 | 사라진 소녀들
- 48 한 책 깊이 읽기 | 「뭐가 되고 싶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
- **50** 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 | 웹툰-드라마 함께 읽기
- 52 친구가 권하는 책 | 수원 독서동아리 친구들
- 56 이럴 땐 이런 책 | 슬기로운 취미생활, 책으로 시작해요!
- 60 꿈을 만들어 가는 진로독서 | 예체능 계열
- 62 교과서 속 책이야기 | 초등 1~2학년 <국어>, <수학>
- 64 책 읽는 스승 릴레이 | 「웅크린 말들」을 읽고 | 운산고 김진영 선생님
- 68 학교도서관 현장을 가다 | 생각 Touch, 변화를 주도하는 독서교육
- 70 웹툰 | 학교생활 | 한국애니메이션고 곽수현
- 72 경기교육도서관 소식 | 경기교육통합도서관 운영



참여

경기교육도서관 및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중앙·평택·광주·여주가남·포천·김포·과천·성남·화성·의정부교육도서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목적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독서정보자료 제공

자료분야

문학·인문·사회·과학·교양·교육·고전·어린이 (8개 분야)

자료선정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간된 신간자료(고전 제외)로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에 권장할 만한 도서

● 행복한 <mark>책읽기 속으로</mark>

추천기간 : 2021.11.2.~ 2022.2.10.

순서	분야	서 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1	문학	- 궤도의 밖에서, 나의 룸메이트에게	 전삼혜	문학동네	· 청소년
2		방금 떠나온 세계	 김초엽	 한겨레	일반
3		죽이고 싶은 아이	 이꽃님	우리학교	 청소년
4		받으로의 자전거 여행	 라이언 앤드루스	에프	청소년 청소년
5	인문		 샌드라 거스	 윌북	일반
6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라 우울해서 그런 거예요	 양곤성	팜파스	청소년
7		스낵 인문학	타임스낵	스테이블	일반
8		나는 게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동은	자음과모음	청소년
9		청소년에게 알려주는 인문학 미래 경쟁력	 최효찬	글담출판	청소년
10	사회	부동산 쫌 아는 10대	 오승현	풀빛	청소년
11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교육공동체벗	청소년
12		축소주의자가 되기로 했다	이보람	카멜북스	일반
13		당신은 아이가 있나요?	케이트 카우프먼	호밀밭	일반
14		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한국법교육센터 외	성림원북스	청소년
15	과학	이산화탄소로 내 몸을 만들었다고?	박동곤	나무를심는사람들	청소년
16		10대와 통하는 기후 정의 이야기	 권희중 외	철수와영희	청소년
17		되는 작아지고 싶어 한다	 브루스 후드	알에이치코리아	일반
18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최재천	김영사	청소년
19	교양	건축은 어떻게 전쟁을 기억하는가	이상미	인물과사상사	일반
20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최혜진	한겨레출판	일반
21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	김영숙	휴머니스트	청소년
22		미디어 읽고 쓰기	이승화	시간여행	청소년
23		말을 거는 영화들	라제기	북트리거	청소년
24	교육	학습 천재가 되는 11가지 공부 비결	바버라 오클리 외	골든어페어	청소년
25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는 10대에게	김원배	애플북스	청소년
26		교사내전	이정현	들녘	일반
27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김성우 외	따비	일반
28		사춘기를 위한 맞춤법 수업	권희린	생각학교	청소년
29	고전	이방인	알베르 카뮈	민음사	청소년
30		돈키호테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살림	청소년
31		선생님, 착한 손잡이가 뭐예요?	배성호 	철수와영희	초등 중학년
32		모두가 원하는 아이	위해준	웅진주니어	초등 중학년
33		<u> </u>	전은희	단비어린이	초등 고학년
34		크리스마스 피그	J.K.롤링 	문학수첩	초등 고학년
35	어린이	도자기에 핀 눈물꽃	김양오	빈빈책방	초등 고학년
36		인류와 함께 똑똑해진 집 이야기	갈리아 타피에로 외	개암나무	초등 중학년
37		내가 모르는 사이에	김화요 	웅진주니어	초등 고학년
38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	김원아 	사계절	초등 저학년
39		그렇게 그렇게	요시타케 신스케	주니어김영사	초등 저학년
40		사라진 소녀들	리디아 카초 리베이로	그레이트BOOKS	초등 고학년

[※]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목록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누리집(lib.goe.go.kr/gg)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문학 01



| 전삼혜 | 문학동네 | 2021 | 208쪽 | 청소년 #사랑 #동경 #우정

궤도의 밖에서, 나의 룸메이트에게

세상이 곧 끝난다 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건,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모두 거쳐왔던 청소년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사회'라는 현실에 입문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 대해 다 알지못한다. 그러한 세상을 투영해주고 알아가기 위한 발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과 우정이 아닐까 싶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 제네시스의 아이들에겐 지구라는 세상 자체를 구하기보다 나만의 세상인 그 누군가를 구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렇다. 그 누군가를 동경하고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가 보는 세계인 것이다. 무언가 거창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대의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간절함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기초적이고 순수한 가치다. 우리는 이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간절히 바꾸고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란 가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 책이 그것을 말해 줄 것이다.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유민영





| 김초엽 | 한겨레 | 2021 | 324쪽 | 일반 #SF소설 #젊은작가상 #우주 #이해 #사랑

방금 떠나온 세계

미지의 우주에도 존재하는,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맞서 '나'를 찾는 일곱 가지 이야기

공상과학소설 베스트셀러 작가 김초엽의 두 번째 단편집 「방금 떠나온 세계」는 타인에게 받는 불완전한 이해에 맞서 '나'를 찾는 일곱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 우주에는 각자의 방법으로 변형된 인류들이 있다. 존재하지 않는 세 번째 팔을 느끼는 트랜스 휴먼, 발성기관이 퇴화해 숨으로 대화하는 숨그림자인 등 다양한 인류가 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순간들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해하지 못함이 곧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기에 주인공들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나'를 포기하진 않는다. 이 책은 하나의 단편이 하나의 세계처럼 공상과 현실이 뒤섞여 있다. 단편들을 읽다보면 어느새 독자는미지의 미래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 이 책을 읽고 이해받지 못한 '나'를 사랑하고, 무한한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보길 바란다.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서 박혜인

문학 03



| 이꽃님 | 우리학교 | 2021 | 200쪽 | 청소년 #친구 #진실 #믿음 #여론 #미디어

죽이고 싶은 아이

한 여고생의 죽음으로 드러난 왜곡된 진실과 믿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서은과 주연은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다. 어느날 두 사람이 크게 다툰 후, 서은이 죽은 채 발견되고 주연이 유력한용의자로 지목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주연은 서연이 죽은 날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주변인물들의 인터뷰를 보면 사람에 따라 달라서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킨다. 상반되는 진술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만든다. 「죽이고 싶은 아이」는 주연과 서은의 주변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진실이 멋대로 편집되고 소비되는 세상을 보여준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씁쓸한 현실을 담고 있는 이 문장을 잊지 말고 진실이 사실 그대로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길 바란다.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윤상배





| 라이언 앤드루스 | 에프 | 2021 | 336쪽 | 청소년 #그래픽노블 #우정 #모험

밤으로의 자전거 여행

흘러가는 등불을 따라 모험을 떠난 소년들의 용기와 우정

벤이 사는 마을은 추분 축제 때 강물에 등불을 떠내려 보낸다. 등불은 강을 따라 흘러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하수로 날아가 별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벤과 친구들은 그 등불이 어디까지 가는지, 전설이 진짜인지 밝혀내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모험을 떠난다. 그러나 친구들은 어른들이 절대 건너지 말라고 말한 다리 앞에서 발길을 되돌린다. 남은 사람은 평소 친구들이 무시하던 너새니얼만 남았다. 벤과 너새니얼은 다리를 건너 본격적인 모험을 한다. 다리를 건너 강을 따라 달리다가 둘은 말하는 낚시꾼 곰을 만나게 되고, 곰과 헤어진 후에는 위대한마법사를 만나 환상적인 모험을 한다. 이야기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흘러간다. 글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답고 환상적인 배경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다. 과연 전설은 사실이었을까? 벤과 너새니얼의 모험의 끝은 어디일까? 결말이 궁금하다면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김석주





| 샌드라 거스 | 윌북 | 2021 | 156쪽 | 일반 #보여주기 #묘사 #말하기 #글쓰기원칙

묘사의 힘

밋밋했던 글이 독자를 몰입시키는 글이 되는 비결

글쓰기의 고전적 원칙인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책에 제시된 예시 문장들을 읽다보면 어째서 '보여주기'가 글쓰기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이해하게 된다. '말하기'는 독자가 작품을 읽게 만들지만, '보여주기'는 독자가 작품에 빠져들어 인물과 함께 살아 숨쉬며 이야기를 경험하게 한다. 또 '말하기'에서 작가는 독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만, '보여주기'는 생동감 넘치는 세부사항을 충분히 전달해 독자가 결론을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장에 수록된 구체적인 예시와 연습문제는 배운 내용을 바로적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꾸준히 연습하고 고쳐쓰는 작업을 계속하다보면 생생하고 감동을 주는 글쓰기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밋밋했던 글이 독자를 몰입시키는 글이 되는 비결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이미경





| 양곤성 | 팜파스 | 2021 | 220쪽 | 청소년 #사춘기 #우울증 #자살 #십대 #심리치료 #상담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라 우울해서 그런 거예요

우울한 십대들을 위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심리치료 에세이

이 책은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상담교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십 대들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그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열등감, 불안, 자살 충동, 무기력, 피해의식 등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통해 우울한 감정들을 보듬어 주고, 마음습관, 마음 챙김 등으로 편안한 내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울증은 심리적 분노를 자신에게 돌린 탓으로 발생한다고한다. 따라서, 우울증 치료의 핵심은 현재 자신의 감정을 기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며, 마음의 상처에게 기울이며, 가장 아끼는 사람을 대하듯이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데서 출발한다고 한다. '왜 나만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고 우울할까?' 라고 불안해하는 십 대들이 이 책을 통해 위로받고, 자신의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읽기를 권한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윤선경





| 타임스낵 | 스테이블 | 2021 | 240쪽 | 일반 #유튜브 #과자 #잡학사전

스낵 인문학

자투리 시간에 일상에 스며든 인문학으로 가볍게 접속할 수 있는 책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요즘 학생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포털이 아니라 유튜브에 검색을 한다고 한다. 생활 정보에서부터 기업의 비하인 드 스토리까지 유튜브에서 상세히 알게 되는 시대다. 인문학도 예외는 아니다. 약 75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타임 스낵'의 특징은 인문학적 지식을 과자처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이책은 타임 스낵의 콘텐츠를 글로 옮긴 것으로,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채널의 미덕을 유지한다. 경제, 역사, 과학 등의 방대한 분야를 담으면서도 한 주제당 페이지가 10장을 넘지 않아 자투리 시간에 읽기 좋다. 낯선 수학 원리를 소개할 때는 삽화를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펩시, 디즈니랜드 등 친숙하기만 했던 소재 속에 깃든 인문학적 사상과 문화를 쉽게 풀어 설명한다. 일상에서 바로 인문학으로 접속하고 싶다면 이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서 추다임





| 이동은 | 자음과모음 | 2021 | 216쪽 | 청소년 #게임 #메타버스 #미래 #가상세계

나는 게임한다 고로 존재한다

게임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주인 되기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들과 금지하는 부모,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아닐까 싶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가상인간 등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고 그 경계가 허물 어지는 일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제 게임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게임이란 어떤 문화·역사·기술적 배경을 통해 탄생했는지 이해하고 게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과 실은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게임 세계를 지금까지 와는 다른 통찰로 바라보고, 게임을 단순한 유희적 활동이 아닌 미래의 상이 펼쳐질 세계로 바라보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를 희망해본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김정미





| 최효찬 | 글담출판 | 2021 | 192쪽 | 청소년 #인문학 #경쟁력 #창의력

청소년에게 알려주는 인문학 미래 경쟁력

창의적 혁신가의 사례를 통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경쟁력을 키우고 인문학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책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이들은 세계혁신을 주도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인문학 작품들에 심취했었다는 점이다. 인문학에는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응축되어 있다. 이들은 인문학공부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경쟁력을 키워 최고의 자리에오른 것이다. 인문학이 미래 시대의 경쟁력이 될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다양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세상을 움직인 혁신가5명의 성장기를 소개한다. 1부에서는 이들이 권장하는 인문학 공부습관을 설명하고 있고, 2부에서는 청소년기에서 꼭 읽어야할 8권의고전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팁을 제시해준다. 미래 시대는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라고 한다. 큰 꿈을 꾸고 더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권하는 이유이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이정주





| 오승현 | 풀빛 | 2021 | 188쪽 | 청소년 #부동산 #불로소득 #주거권 #불평등 #양극화

부동산 쫌 아는 10대

부동산에 매몰된 사회에서 땅과 집이 지닌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김해주는 입문서

'엘사', '영끌', '벼락거지' 등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생겨나는 부동산 관련 신조어만 수십 가지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학생들이라고 다를까? 요즘 십 대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또한 건물주라 한다. 물론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투자 능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문제는 사회인이 된 후에야 부동산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겐, 인간의 삶에서 땅과 집이 갖는 의미와 부동산 문제가 초래할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볼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렇다 할 부동산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땅과 집이 간직해온 역사와 가치를 전해주는 좋은 기본서가 되어줄 것이다.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기보다 그에 앞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가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김아련

사회 02



| 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 교육공동체벗 | 2021 | 264쪽 | 청소년 #청소년법 #청소년인권 #자유 #권리 #의무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청소년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설명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줘야 한다.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이다. 이 책은 가상의 사례를 구성해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법적인 근거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고민부터 가출, 비행과 같은 심각한 고민에 대한조언을 얻을 수 있다. 청소년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권리가 생기면 의무가 부여되듯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과 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사서 이재웅





| 이보람 | 카멜북스 | 2020 | 228쪽 | 일반 #환경보호 #미니멀라이프 #친환경 #에코라이프

축소주의자가 되기로 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덜어 내기'

최근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의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환경을 생각하는 개인의 작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그 실천 방법으로 생활방식의 '축소주의'를 제안한다. '축소주의'는 각자 할 수 있는만큼 환경에 해가 되는 일을 줄여나가자는 운동이다. 동물성 식품을적게 먹고,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며, 화학 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은 농산물을 먹는 등 내가 할 수 있는만큼 해보자는 생활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작가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어 쉽게 읽을 수 있으며, 환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들의 입문서로 추천한다. 나와 내 건강을 챙기는 작은 실천이 나비처럼 날아가 온 지구에 퍼지길 바란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최영심





| 케이트 카우프먼 | 호밀밭 | 2021 | 416쪽 | 일반 #삶의방식 #논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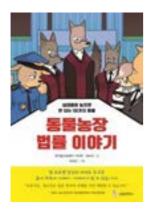
당신은 아이가 있나요?

엄마로 살지 않는 여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위한 안내서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우리는 딩크족이라고 한다. 그런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가 없는 여성은 뭐라고 지칭해야 할까? 이 책은 아직 명확한 용어로 정의되지 않은 '엄마로 살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책이다. 널리 합의된 명확한용어가 없기에 이 책에선 그러한 여성들을 문맥에 따라 여러용어들을 사용한다. 나는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논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아이가 없는 여성을 떠올리면 딱히 대표되는 롤 모델이나 관찰 예능이 대세인 요즈음 대표되는 연예인한 명쯤은 생각날만도 한데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논맘'의 길을 건는 사람들은 이정표 없는 길을 헤쳐나가야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논맘'의 삶을 사는 여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머나먼 곳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일인 것이다.이 책과함께 '논맘'에 대한사회적 단론이들어났으면한다.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최문정





| 한국법교육센터 외 | 성림원북스 | 2021 | 265쪽 | 청소년 #학교폭력 #정보보호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저작권

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청소년들의 생활반경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구체적 사례로 풀어낸 청소년을 위한 50가지 법률 이야기

"방탄소년단 뷔와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동경하는 가수와 서로 좋아하게 되는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면, 초등학교 6학년인 유나는 뷔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807조에 의해 만 18세 이상부터 결혼을 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808조에 따라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만 12세인 유나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다 해도 결혼을 할 수는 없다. 이 책은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법을 몰라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들이 꼭 알아두어야할 50가지 법률과 함께 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법'에 대해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 보자.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박윤아





| 박동곤 | 나무를심는사람들 | 2021 | 248쪽 | 청소년 #원소 #화학 #교양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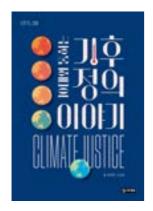
이산화 탄소로 내 몸을 만들었다고?

어려운 화학기호도, 복잡한 반응식도 필요 없는 술술 넘어가는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

이 책은 화학 입문서라고 하면 흔히 어려운 화학 기호들이 난무해서 분명 한국어로 쓰여 있으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일 것이라는 선 입견을 깨주는 책이다. 어려운 화학반응식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우리를 둘러싼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공기에 포함되는 산소, 질소, 수소, 이산화 탄소 등에 대한 40개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로 가득 차 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 안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만이 화학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 '왜'라는 호기심을 가지는 것부터 화학의 시작이며, 그 호기심의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하면 화학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사서 안선영





| 권희중 외 | 철수와영희 | 2021 | 204쪽 | 청소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저탄소 #ESG #재생적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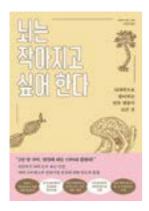
10대와 통하는 기후 정의 이야기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인식과 행동이 우리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산업발전으로 지구 온난화와 탄소배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과 재산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기후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개인은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육식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여야 하며, 기업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고려하는 투자 정책을 펼쳐서 온실가스와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맹목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한계 내에서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고, 덜 버리고,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재생적 경제'로 탈바꿈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해법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한윤조





| 브루스 후드 | 알에이치코리아 | 2021 | 340쪽 | 일반 #뇌과학 #행동발달 #인류 #교양과학

뇌는 작아지고 싶어 한다

똑똑한 사람은 뇌가 크다는 선입견을 버리게 해 주는 이야기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인류의 뇌는 200만 년 동안 이어진 진화를 통해 점점 커졌다. 인류의 뇌가 왜 점점 커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자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다른 포유류에 비해 생존경쟁에서 뒤떨어진 면을 보완하고 수렵 활동 중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후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 뇌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만 년 전부터 인류가 군집 생활을 시작한 후 뇌는 오히려작아진다. 저자는 인류가 집단생활을 통하여 타인과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격성을 지배하고 근육을 발달시키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뇌의 크기도 작아졌다고주장한다. 협력심이 높아지면서 줄어든 뇌를 가지게 된 인류는 서로의눈치를 살피고 관심받기를 원하는 집단이 되었다. 작아진 뇌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정세희





| 최재천 | 김영사 | 2021 | 176쪽 | 청소년 #생태적전환 #지구 #공존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더 늦기 전에,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적 인간으로의 전환

지구의 생명체들과 더불어 공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그 결과 팬데믹과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고갈 등 우리의 존립 자체가 위협당하는 위기까지 오고 말았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생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코로나19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행동 백신과 더불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건너오지 못하도록 야생동물을 건드리지 않는 근본적인 생태 백신을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환경문제 중 인간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문제일 것이다. 이 책을 계기로 '생태적 전환'을 이뤄내는 삶의 자세로 지구를 인간 외 다른 생명과도 공유하여 살아가길 다짐하면 좋겠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사서 이지민





| 이상미 | 인물과사상사 | 2021 | 316쪽 | 일반 #건축 #전쟁 #역사

건축은 어떻게 전쟁을 기억하는가

에펠탑에서 콜로세움까지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건축물

인류의 문화유산인 유럽의 건축물은 전쟁을 통해 파괴와 창조를 반복하며 현재의 모습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5개 국가의 빛나는 건축물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통해 유럽사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독일의 사령관 콜티츠는 에펠탑을 비롯해 루브르박물관, 노트르담대성당, 콩코르드광장 등 건물을 폭파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고 건축물을 지켜낸다. 독일의 지붕 없는 교회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 때폭격으로 파괴된 지붕을 그대로 보존하여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탈리아 콜로세움은 피비린내 나는투기장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웅호하는 건축물로 거듭나고 있다. 러시아의 붉은 심장 크렘린 궁전은 요새로 시작해 왕이 머무르는 거처, 레닌의 영묘 등 러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로의 역사적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건축물에 얽힌 전쟁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건축물의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진경미





| 최혜진 | 한겨레출판 | 2021 | 336쪽 | 일반 #그림책 #인터뷰 #돌파하는힘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그림책 속 작은 존재들처럼 어둠 속에서도 다음에 올 빛을 보기 위한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의 돌파하는 힘

한국의 어려운 그림책 시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작가들만의 돌파하는 힘으로 '아직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는 한국의 그림책 작가 10명의 인터뷰를 담은 책이다. 사진작가 해란이 작가들의 작업실, 그림 도구, 원화 등 현장의 사진을 실어 그림책을 만들기위한 노력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각기 다른 조건과 환경속에서 난관과 장애물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돌파한 10명의 작가가같은 이유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압축된 한 장의 그림으로, 책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더 자유롭게 비틀고 꿈꾸렴. 너에게 이곳을 더 좋게 바꿀 힘이 있어"라는 용기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 힘들고 넘어지는 순간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 언제나 열어볼 수 있는 나만의 그림책이 생겨나길 바라본다.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홍정희

교양 03



| 김영숙 | 휴머니스트 | 2021 | 200쪽 | 청소년 #미술 #미술관 #그림감상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

'알고 보는 그림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청소년을 위한 미술 입문서

미술작품을 보고 실제와 똑같이 그렸다고 감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사진을 찍는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필자는 말한다. 위대한 화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감동적인지, 왜 훌륭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술 입문서다. 이 책에서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에 이어 19세기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등 세상을 보는 색다른 눈을 제시한 화가들을 통해 미술사를 알게 해준다. 또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 화가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힘겹게 살아간 화가들의 인생 이야기와 그들이 숨겨 놓은 그림 속 상징들을 알게 되면 그림에 대해 풍성한 이해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미술관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림을 읽어가는 재미를 마음껏 누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서 김용민





| 이승화 | 시간여행 | 2021 | 308쪽 |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비판적시각 #퍼스널브랜딩

미디어 읽고 쓰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이야기

최근 교육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과과 정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선진 교육 흐름에 발맞춰 2025년부터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고 교육과 정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와 팬데믹 시기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디지털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비판적이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미디어 쓰기와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퍼스널 브랜딩까지, 미디어를 활용한 일련의 인생 설계 과정을 제시한다. 무분별한 정보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누려야 할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최성한





| 라제기 | 북트리거 | 2021 | 200쪽 | 청소년 #영화 #조커 #미나리 #비평

말을 거는 영화들

영화와 책을 보고, 생각 넓히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느껴보고 싶지 않은가? 커다란 스크린으로 영상과 소리를 통해 다양한 시대와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의 매력을 아는 친구들은 좋아하는 영화가 한두 편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조커>나 <미나리>처럼 우리가 잘 아는 영화부터 조금은 생소한 영화까지 24편의 영화를 5개의 주제 자아찾기, 갈등과 화해, 고발, 한국사, 미래의 5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상영관으로 들어가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보여준다. 다양한 시선으로 색다르게 영화를 즐기고 싶은 청소년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혼자 보아도 좋지만, 친구와 가족과 함께 소개된 영화를 한 편씩 보고 이야기해도 좋은 책이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사서 이정하





| 바버라 오클리 외 | 골든어페어 | 2021 | 296쪽 | 청소년 #공부법 #자기계발 #학습

학습 천재가 되는 11가지 공부 비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11가지 학습 가이드

이 책의 저자들은 학창 시절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학습법'과 관련하여 수만 명이 수강하는 강좌를 운영하며, 교육 컨설턴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타고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편견을 깬 것이다. 천재가 아닌 학습에 어려움을겪은 평범한 저자가 명문대 교수가 되고, 교육자가 되어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학습 도구의 쓰임새와 공부법을 예시와 삽화를 통해 설명해 주며 시험에 필요한 요령, 공부 중 휴식을 취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학습 천재가 되는 비결은 알고 있어도 귀찮아서,습관이 들지 않아서 실천하지 못한 방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과,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접근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구승연





| 김원배 | 애플북스 | 2021 | 216쪽 | 청소년 #진로 #학습방법 #미래설계 #습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는 10대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용적인 안내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라는 작가의 물음으로부터 시작한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6개의 주제로 구성된 각 장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좋은 습관과 학습 방법, 단단한 자아 설계, 직업관,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활동지를 넣어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질문에 걸맞은 한 줄의 명언도 눈여겨볼 만하며, 책 사이사이에는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와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공부의 목적을 알려 주는 28가지 진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작성해 보고 탐색을 넘어 계획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김윤혜





| 이정현 | 들녘 | 2021 | 240쪽 | 일반 #교사 #교사로사는 법 #학교

교사내전

대한민국 교사로 살아가는 진짜 교사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의 모습은 어떠하며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입시 학원강사에서 사립학교기간제 교사, 정교사로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거쳐 농업계 특목고까지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교육계의 이단아라고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학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자, 35년간 대면 수업을 한 원로교사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도리를 다 하겠다고 수업자료를 만들고강의 녹화, 업로드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교사는 학생과 함께할 때 비로소 교사가 된다는 저자의 말에 수긍이 간다. 교사가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그들의 고민과고충에 공감하며 학교와 교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될 것이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사서 박치성





| 김성우 외 | 따비 | 2020 | 296쪽 | 일반 #리터러시 #문해력 #미디어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학자와 언어학자의 대담집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보채널의 다원화는 읽고 쓰기의 풍경 또한 빠르게 바꾸고 있고, 이에 문해력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이 책은 사회학자 엄기호와 언어학자 김성우가 교육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의 개념부터 다매체 시대의 리터러시 교육 방법 등 리터러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대담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시험 위주의 리터러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리터러시 생태계를 만들고, 읽고 쓰는 행위 자체를 함께 누리며 더 나은 삶을 위해연대하고 고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자녀의 리터러시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일선 학교 현장에서 리터러시교육을 실천해가는 교사, 도서관 사서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다.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이경소





| 권희린 | 생각학교 | 2021 | 240쪽 | 청소년 #맞춤법 #일상단어 #기본지식

사춘기를 위한 맞춤법 수업

더 정확한 소통을 위해 사춘기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맞춤법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도 헷갈리는 맞춤법이 너무나도 많다. 책을 읽다보면 흔하게 쓰는 말인데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가령, 겨드랑이에 나는 땀을 '겨땀'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곁 땀'이 바른 표현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말할 때 나는 발음 그대로의 단어가 맞을 것 같지만, 실제 맞춤법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 문법이나 맞춤법에 관한 책은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이 책은 사서교사인 저자가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와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공감할수 있는 이야기를 올바른 맞춤법 표현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지식도쌓고 공감도 할수 있다. SNS에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친구들과 메신저로 얘기할 때, 정확한 단어가 아니라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보다 표현이 틀렸음에 집중하게 될수 있다. 친구들에게 "너 맞춤법 틀 렸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이 책을 친구와 함께 읽어보는 건 어떨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최경미





| 알베르 카뮈 | 민음사 | 2019 | 280쪽 | 청소년 #이방인 #알베르카뮈 #생의부조리 #인간의실존

이방인

생의 부조리와 인간의 실존

고전 책은 읽기 어렵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계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즐겁게 읽을 수 있다. 이방인은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주인공 뫼르소의 비극을 다룬다. 뫼르소는 어머니가 죽은 다음 날 해수욕을 하고, 여자와 관계를 갖고, 희극 영화를 보며 즐거워하고, 살인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도 행복해하면서 자신을 배반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타인들은 그의 행동에 죄가 있다고 파악할 뿐 그에게 무관심하다. 현실에서 소외되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마주하는 실존의 체험은 역설적으로 억압적인 현실의 모순을 보여 준다. 작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방인마저 품어 주는 사회야말로 건강하고 진정 자유로운 세상임을 뫼르소가 마주한 비극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싶다.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황선영





|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 살림 | 2017 | 220쪽 | 청소년 #돈키호테 #기사도 #이상주의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망상으로 시작된 신념이지만 자신의 신념대로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상주의자 돈키호테의 모험담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가 16세기 스페인 사회에 만연해 있던 '중세기사도 이야기'를 비판하기 위해 쓴 풍자소설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시대와 지역을 반영한 다양한 해석과 메시지를 주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사도 이야기를 탐닉하다 망상에 빠진 돈키호테가 자신만의 이상을 찾아 떠난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을 사실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이상주의자인 돈키호테와 달리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시종 산초와의 대화를 통해 돈키호테의무모하고 비현실적인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비록 망상으로 시작된 신념이지만 자신의 꿈을 좇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돈키호테의 모습은 꿈을 찾고 있거나, 꿈은 찾았으나 갈 길이 멀어 아득하기만 한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시사점을 주며 매료시킨다. 이제 막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청소년들이 고전 「돈키호테」를통해 '나의 꿈을 대하는 나의 자세'도 더불어 생각해보길 바란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박윤정





| 배성호 | 철수와영희 | 2021 | 104쪽 | 초등 중학년 #디자인 #인간공학 #배려

선생님, 착한 손잡이가 뭐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 이야기

물건 구매 시 예뻐서 샀다가 사용이 불편해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디자인할 때, 보이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인체공학적이 고 편리한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와 뗄 수 없는 핸 드폰만 봐도 크기, 각도, 두께, 베젤 간격, 버튼 위치 등 요소 하나하나 한 손으로 잡았을 때 힘이 들지 않고 조작이 편리한지 여러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찾아 디자인한 결과물이다. 이처럼 생활 속 주변 모든 것들은 디자인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람에 맞춘 디자인에서 사람은 어떤 기준일까. 모든 사람의 신체 조건이 같은 것 은 아니기에 디자인할 때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위 하나도 오 른손잡이를 위한, 왼손잡이를 위한 가위가 따로 존재하듯 디자인 속에 도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위한, 자연을 위한 디자인 등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 이야기도 만나보자.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사서 김은

●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위해준 | 웅진주니어 | 2021 | 140쪽 | 초등 중학년 #모두가원하는아이 #진짜나

모두가 원하는 아이

내 성격을 맞춤버튼을 통해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 건 진짜 나일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

내 성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단번에 새롭게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나'일까? 이 책은 작가의 이런 물음에서 시작된다. 이 책에 나오는 새미래 정신성형 연구소에서는 성형 수술로 외모를 바꾸는 것처럼 개인의 욕구와 목적에 따라 어린이들의 성격을 바꾸어 준다. 돈을 내고 원하는 성격에 따른 버튼을 장착하면 새로운 나로 바뀌는 것이다. 누구나 혹 할 수도 있는 제안이지만 어떤 상처로 말문을 닫아버린 이 책의 주인공은 정신성형을 거부하고 아이들과 함께 정신성형 연구소를 탈출한다. 이 책은 열두 살 어린이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모습까지 나 자신임을 깨달아가는 성장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 책을 읽는 친구들이 주인공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강영민





| 전은희 | 단비어린이 | 2021 | 144쪽 | 초등 고학년 #반려견 #생명 #우주 #왈왈별 #동물

왈왈별 토토

왈왈별에서 온 토토의 지구별 탐사기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화책

태양계 밖 왈왈별에 사는 '바크족' 토토는 지구에 사는 개와 크기도 생김새도 유사하다. 지구에 처음 도착한 토토에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주고 목줄도 걸었다. 토토는 자신을 물건 취급하고 마치 자신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인간들이 부당하고 이상했다. 토토의 눈에 인간들은 자신과 생김새와 언어가 다른 종족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성인 왈왈별이 지구보다 더욱 발전된 곳이라는 걸 말해 주고 싶었지만, 말이 안 통하니 답답했던 토토는 하루빨리 인간들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다. 토토는 무사히 왈왈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많은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왈왈별 토토」 이야기를 만나보자.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박하상

●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J.K. 롤링 | 문학수첩 | 2021 | 336쪽 | 초등 고학년 #크리스마스 #장난감 #애착인형 #추억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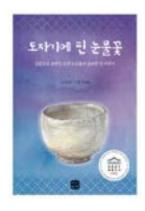
크리스마스 피그

추억이 담긴 소중한 애착 인형을 찾아 분실물 나라로 떠나는 크리스마스 모험 이야기

어릴 때부터 모든 순간을 함께한 애착이 담긴 물건은 어디로 갔을까? 이 책의 주인공 잭에게도 영혼의 단짝 돼지 인형 '디 피그'가 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에서 적응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유일하게 위안을 가져다주는 친구이다. 모두에게 행복과기대를 꿈꾸는 크리스마스 이브, 잭은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다. 새로운 돼지 인형을 선물받지만 잭의 애착 인형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결국 잭은 소중한 친구를 찾아 분실물 나라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난다. 잭의 여정을 함께 따라 읽으면 누군가에게 한때 소중했지만 성장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잃어버린 순수함을 발견하게 된다. 어린이 독자에게는 현재 나와 함께하는 애착이 담긴 물건들을, 성인 독자에게는한때 나의 의지가 되어주었으나 이제는 떠나보낸 추억들을 되새겨준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이 책을 읽으며 나만의 '디 피그'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서 이 솔





| 김양오 | 빈빈책방 | 2020 | 160쪽 | 초등 고학년 #도공 #전쟁포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역사동화

도자기에 핀 눈물꽃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언제나 더 흥미진진하고 생생한 것 같다. 이 책도 실화를 바탕으로 지은 역사동화로 조선시대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에 관한 이야기가 실감나게 펼쳐진다. 1598년 조선시대 정유재란 때 심당길과 도공들은 일본으로 끌려갔다. 당시 차를 마시는 다도가 유행하던 일본에서 조선의 우수한 도자기는 매우 귀했기 때문에 조선의 도공을 전쟁포로로 데려가 도자기를 만들게 했다. 그들은 타국땅 일본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도자기를 만들며 열심히 살았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자기 가문으로 유명해졌다. 지난 1998년에는 도공의 후손이 400년 만에 고향인 남원시를 방문하여 도자기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더 일찍 찾아보고 초대하지 못함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힘들면서도 정성스러운 과정들을 이해하게 되어 박물관의 옛 도자기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김상미

●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갈리아 타피에로 외 | 개암나무 | 2021 | 48쪽 | 초등 중학년 #집 #주거 #생활

인류와 함께 똑똑해진 집 이야기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집 이야기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요즘 집의 의미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예전엔 그저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삶의 안식처였지만, 오늘날 집은 돈을 벌기 위한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과연 아이들에게 는 집이 어떤 의미로 비춰질까? 이 책은 과거 선사시대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주거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각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해온 집의 역사를 보여 준다. 집은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만은 아니다. 집을 자산의 의미가 아닌 행복을 찾는 공간으로생각한다면 집의 가치도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은 집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 살게 될 미래 집의 모습에 대해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김봉화





| 김화요 | 웅진주니어 | 2021 | 108쪽 | 초등 고학년 #친구 #이해 #진실 #왕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친구라면, 혹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리하여, 친구와 마음의 아득한 거리를 좁히고 싶다면…

사라진 엄마의 지갑...범인은 과연 누굴까? 동화 「내가 모르는 사이」에는 생일파티에서 생긴 도난사건을 중심으로 세 아이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밝고 정의롭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반장 고효민의 시선,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 살던 달동네 내별마을로 이사 온 임수현의 시선, 늘 주목받고 싶어 하지만 반장 자리를 놓치고 불안해진 강주목의 시선. 세 아이의 시선을 통해 그려지는 섬세한 심리 묘사가 흥미롭다. 아이들 세계에서 빚어지는 오해와 동요, 괴롭힘이 정당화되고 인기 많은 반장에서 순식간에 왕따로 전락하는 전개 과정 등 현실적 공감과 몰입감으로 책은 순식간에 읽힌다. '친구'지만 각자가 가진 이유로 서로 거리를 두었던 아이들, 그로 인해 서로를잘 알지 못하고 생긴 편견과 선입견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폭력이 될수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다. 아이들은 과연 상대방의 마음에 조금 더다가가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을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박상미

●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김원아 | 사계절 | 2022 | 140쪽 | 초등 저학년 #관계 #말하기 #학교생활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

처음 만나는 학교생활, 어려운 인관 관계에서 슬기롭게 말하는 방법

따뜻한 부모의 품과 배려가 가득한 유치원을 이제 벗어난 아이에게 초등학교 생활은 잡아주던 손을 놓아 버린 두발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다. 친구 관계의 범위도 넓어지고 어른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아이들만의 상황도 새롭게 발생한다. 처음 만나는 곤란한 상황에 아무런 말도 못 하거나 화를 내보기도 하지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은 전달되지 않는다. 서로가 만족하는 관계의 소통은 아이뿐만 아니라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하는 부모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글쓴이는 '친구가 자기 생각만 맞다고 고집할 때', '친구와 싸웠는데 먼저 사과하고 싶을 때' 등 62가지의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아이와 함께 다양한 관계의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읽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학교'라는 작은 세계에 처음 놓인 아이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신성욱

어린이 09



| 요시타케 신스케 | 주니어김영사 | 2021 | 48쪽 | 초등 저학년 #가족 #사랑 #성장 #감동

그렇게 그렇게

자녀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성장기를 회상할 수 있는 이야기

온 가족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와 '나 때도 그랬지' 하는 공통분모가 있어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다. 그림책이기에 문장은 짧지만, 문장 속 함축된 글귀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삽화에서 자신의 생활과 비슷한 주인공의 모습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아이들은 어렸을 때 투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점차 성숙해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한다. 글쓴이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얘기를 특유의 화법과 그림으로 풀어내며 유머와 감동을 전달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도,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감동을 선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김성민

●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리디아 카초 리베이로 | 그레이트BOOKS | 2021 | 76쪽 | 초등 고학년 #컴퓨터범죄 #디지털성범죄 #인권존중

사라진 소녀들

인권 운동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쓴 책

이 책은 멕시코 작가이자 인권 전문 기자인 리디아 카초 리베이로가 아이들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쓴 작품이다. 이야기속 주인공 미리암은 같은 반 친구인 카일라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카일라를 찾기 위한 사이버 탐정단을 결성한다. 탐정단 활동으로 디지털 성폭력,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위험성을 알게 되고, 미리암의 용기로 친구들은 카일라에게도 손을 내밀게 되는 연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책의마지막 부분인 <명탐정 미리암의 사건 수첩>에는 성범죄와 관련된단어 해설도 들어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른들이 두려워하면 아이처럼 작아진다.'라는 미리암의 수첩 메모는 현실 속 어른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듯하다. 디지털 세대,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전미향

가로세로 낱말퀴즈

		2		5		6	
1			3				
			4				
8							
7					13		15
					14		
		9		11			
	10						
			12				

가로 열쇠

- 1.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대표 소설 (36쪽 서평)
- 4. 무적함대로 대표되었던 남유럽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 (36쪽 서평)
- 5. 연구나 실험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38쪽 서평)
- 7. 가상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 (14쪽 서평)
- 9. 스페이스X 프로젝트, 전기차, 가상화폐로 유명한 인물 (15쪽 서평)
- 10. 옛날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 (45쪽 서평)
- 12. 러시아의 붉은 심장으로 불리우는 러시아제국의 건축물 (25쪽 서평)
- 14. 가설이나 이론이 실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실시하는 일 (37쪽 서평)

세로 열쇠

- 2.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않도록 잘 보살펴 돌봄 (18쪽 서평)
- 3. 가장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 (23쪽 서평)
- 5. 연예계에 종사하는 자 (19쪽 서평)
- 6. 목성 궤도 및 그 안쪽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보다 작은 천체 (7쪽 서평)
- 8. 한 방에서 같이 살게 된 사람 (7쪽 서평)
- 11. 영상을 투영하기 위한 백색의 막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영화계, 화 면이라는 뜻의 관용어로 사용 (29쪽 서평)
- 13.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산을 늘리는 행위 (42쪽 서평)
- 15. 독일 사령관 콜티츠가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켜낸 건축물 중 하나인 OOOO대성당 (25쪽 서평)

>>> 정답은 74쪽에 ...

뭐가 되고 싶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는 15가지 질문



저 자 | 알랭 드 보통 외 출판사 | 미래엔아이세움 대 상 | 청소년 주 제 | 꿈, 진로, 미래가 막막한 이들에게 전하는 진솔한 조언과 빛나는 통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현유정

어른들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직업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잘 모르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쉽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묻는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태연하게 장래 희망을 묻는 어른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진지하게 이 질문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장래 희망에 관한 질문은 민감하고, 복잡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는 어린이 전용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진지하고 지혜로운 어른한테도 정말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자기 자신과 세상에 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해요. 즉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알아야 하고, 돈이란 무엇인가,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이 둘을 연결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요. (10쪽)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정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 임에도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훈련하는 데는 엄청난 관심을 쏟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어른들이 지나온 길을 연구해 보면, 그 길이 얼마나 자주 우연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알게 되어 깜짝 놀랄 거에요.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리저리 헤매고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잘될 거라는 뜻이니까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업을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결국 오랫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뜻밖의 만족스러운 목적지에 다다를 테니까요. (26쪽)

전문화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새로운 직업은 더는 생기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새로운 직종은 언제나 생겨난다. 수많은 종류의 직업 중에서 나와 잘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한 십 대에게 직업의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준다.

대개 직업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따라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으로 나뉘어요. 하지만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을 나누는 데는 좀 더 근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바로 '그 직업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가?'예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직업이고, 해결하려는 문제가 하찮거나 해로우면 나쁜 직업이 돼요. (83쪽)

가치도 있고, 재미있기도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멋진 직업'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의 원천을 잘 파악해서 좋은 직업을 찾을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책 본문 중간중간에 직업들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이 수록되어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좋은 직업이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행해지고 더 설레고 즐거워하도록 도우며, 나 자신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일이에요. 좋은 직업을 가진다면, 자신이 쏟은 노력이 다른 사람의 삶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에요. (142쪽)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슨 일을 직업으로 삼을지 바로 알 수는 없더라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은 일에서 행복을 찾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즐기면서 일을 한다. 직업에서 '재미'와 '의미'도 찾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는 길잡이가 되는 책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른들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까? | 비르지니 모르간 | 주니어RHK | 2021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미래 직업 이야기 | 신지나 | 봄나무 | 2021

● 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

웹툰-드라마 함께 읽기

「이태원 클라쓰」



저 자 | 광진 출판사 | 영컴 대 상 | 일반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서 김용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마.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거 다 이루면서 살거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으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제가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 누구도 저와 제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제 말 행동에 힘이 실리고 어떤 부당함도,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광진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청춘들의 창업 신화를 그린 청춘 드라마이다.

원작의 주인공인 박새로이는 어린 시절부터 짧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해 왔으며, 사회성이 떨어져 친구를 한 번도 제대로 사귀어보지 못했다. 이전의 꿈은 경찰이었으나 장가의 후계자인 장근원의 학교폭력에 맞서다가 전학 당일 퇴학을 당하고 1년 뒤 아버지를 잃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복 폭행까지 하게 되어, 살인미수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경찰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소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가진 자가 우위에 서는 것을 당연시하는 장가에 맞서며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꿈을 부자로 바꿔 조금씩 돈을 모아 이태원에 '꿀밤'이라는 호프집을 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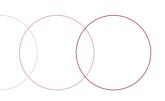
연 출 | 김성윤, 강민구 출 연 | 박서준, 김다미 외 방 영 | 2020

그러나 '꿀밤'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성년자로 불법 출입한 장 근수와 조이서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가게 된다. 경찰서에서 장근수의 보호자로 온 장근원은 박새로이를 조롱하 며 선처를 해주려고 하지만 새로이는 이를 거부하고 두 달간의 영업정 지를 받는다. 그러자 장근원은 새로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자극 하지만 예전과 달리 폭력을 쓰지 않고 눈물 섞인 악수로 복수를 다짐 한다.

조이서를 매니저로 채용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장근수를 알바생으로 영입하게 되고 '꿀밤'의 문제점들을 이것저것 고쳐나가며 가게를 키워 나가기 시작한다. 7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고 '꿀밤', 주식회사 I.C는

요식업계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지만 여전히 장가를 따라잡기 위해 CEO 새로이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국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에 성공한다.

원작의 작가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아직 호프집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없으므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설정 상황은 20·30대에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판단이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작가가 공사 현장, 호프집 아르바이트, 휴게소, 물류센터, 공장 등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일했던 그가 항상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화가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전하던 공모전에는 계속 떨어지고 어렵게 구입한 차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나서 대출을 대출로 막는 힘든 상황에 빠졌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그를 오로지 꿈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죽을 때 죽더라고 꿈에 제대로 올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골집에 내려가 방구석에 박혀서 그림만 계속 그렸다. 마지막이다 싶었던 공모전에도 떨어졌으나 아마추어 투고에도 계속 도전하여 결국 웹툰 플랫폼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 항상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 꿈을 이룬 작가는 여전히 쉬지 않고 웹툰을 그리고 있으며 '인생작'이라고 할 만한 만화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한다. 작가의 경험과 인생이 담긴 청춘 스토리는 많은 사람에게 공감과 재미를 선사하는 동시에 독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열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친구가 권하는 책

광교초, 매산초, 탑동초, 태장초 독서동아리 친구들





저 자 | 이금이 대 상 | 초등학생 추천인 | 광교초 박서연

너도 하늘말나리야

'하늘말나리'라는 생소한 단어에 이끌려 펼쳐들게 된 책 「너도 하늘말나리 야」는 우리를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는 한적하고 싱그러운 달밭마을로 초 대해. 서울에 살다 부모님이 이혼해 엄마와 달밭마을에 오게 된 미르, 편찮으신 할머니와 둘이 사는 소희,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 선택적 함구증을 얻게 된 바우. 저마다 마음속에 가시를 품고 있는 주인공들을 책을 읽어 가며 조금씩 이해해나가게 돼. 어쩌면 우리도 미르일 수 있고, 소희일 수도 있고, 바우일 수도 있지. 너도 마음속의 가시를 없애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 어봐. 그럼 너도, 하늘말나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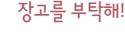
저 자 | 이꽃님 대 상 | 초등학생 추천인 | 광교초 박세현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2016년의 은유가 쓴 편지가 세계를 건너 1982년의 은유에게 도착해. 둘의 관계는 장난인 줄 알았던 편지를 시작으로 서로의 고민과 비밀을 터놓는 사이로 발전하는데, 그러다 알게 되었어. '우리 둘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과거 은유가 말을 했어. '이제야 알겠어. 그 먼 시간을 건너 네 편지가 나한테 도착한 이유를……' 읽는 내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여 마음 졸이며 읽었던 두 은유의 감동적인 이야기. 두 은유에게 기적이 일어난 건 진심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은유의 간절한 바람 때문은 아니었을까?



저 자 | 홍민정 대 상 | 초등학생 추천인 | 매산초 오지율



지호가 어렸을 때 시골집 할머니의 냉장고에 '장고'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장고는 오래되고 낡아서 마당의 해진 소파와 깨진 몸거울 옆으로 쫓겨났어. 지호의 할머니는 장고의 아래 칸에 문짝을 떼어내고 낡은 신발로 채웠고, 지호는 장고의 위 칸에 시골 논밭에서 찾아낸 부서지고 깨진 물건을 보물처럼 채웠어. 그리고 지호는 장고에게 '지호의 보물상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지. 나도 제주도 외갓집에 작은 나의 냉장고가 있어. 그곳에 색연필, 종합장, 지렁이 젤리, 소라껍데기, 구멍이 숭숭 뚫린 까만 하트모양돌까지 꼭꼭 숨겨두고 왔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잘 지켜주고 계셔. 다음에 외갓집에 가면 나의 냉장고에도 예쁜 이름을 지어줄거야. 친구들도 내 보물을 모아둘 곳이 고민된다면 이 책을 읽고 힌트를 얻어봐.



저 자 | 차율이 대 상 | 초등학생 추천인 | 탑동초 이가율

미지의 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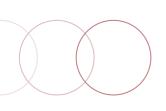
안녕? 친구들.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책은 「미지의 파랑」이라는 책이야. 미지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고 파랑은 파란 구슬을 말해. 미지가 파랑이에게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자 조선 시대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겪는 일을 쓴 책이야. 이 책을 읽다 보면 너도 어느 순간에 미지가 되어 있을걸? 특히 미지의 친구이자 조선시대 해적단 대장인 해미가 인어로 변하던 순간은 너무 아름다웠어. 어때? 해미와 미지의 애틋한 우정 이야기 정말 궁금하지 않니? 한번 읽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책 「미지의 파랑」 완전 강추!



저 자 | 히로시마 레이코 대 상 | 초등학생 추천인 | 탑동초 김미르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의 주인 베니코는 신기한 과자를 팔아. 베니코가 팔각상자를 돌려서 '1984년의 5엔 동전'이 나온 사람만 전천당에 들어올수 있어. 전천당의 과자는 다른 과자와는 다르게 특별한 능력이 있지. 근처의 과자 가게 화앙당의 요도미는 전천당의 영업을 방해하지만, 시리즈마다 나오는 과자들의 특별한 능력으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이 책은 선을 권하고 악을 나무라는 권선징악을 판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읽을수록흥미진진해.





저 자 | 박대곤 대 상 | 초등학생 추천인 | 탑동초 김선아

유쾌한 수의사의 동물병원 24시

수의사 선생님의 실제 경험담을 적은 책이야. 표지는 재미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은 웃기는 일이 많아.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 중 수의사가 있어서 읽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진료한 동물들과 겪은 일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서 재미있었어. 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몇 가지 지식도 있어 특히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친구라면 여러 가지 팁들을 배울 수 있지. 수의사 선생님이 속마음을 그대로 적어서 마치 일기를 훔쳐보는 것같았어. 병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손님들도 만날 수 있고 웃음이 나는 경험 담도 많아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해. 그리고 수의사가 꿈인 친구들한테는 수의사 국가 자격시험과 수의과 대학 추천에 관한 내용 등 수의사가 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책이야.



저 자 | 전지은 대 상 | 초등학생 추천인 | 태장초 한지우

어린이를 위한 청소부 밥

이 책은 밥 할아버지가 크리스에게 '좋은 취미를 가지렴,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란다, 투덜대지 말고 기도를 해 보렴, 배운 것을 친구들과 나누렴, 현재는 미래를 위한 준비란다, 삶의 지혜를 어른들로부터 배우렴'이라는 여섯 가지 지혜를 들려주는 이야기야. 취미를 갖고 즐기다가도 금방 싫증을 내고, 어떤 일에는 투덜투덜 댈 때가 있고, 배운 것을 친구와 나누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밥 할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 것 같았어. 지혜롭게 커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친구들도 읽어보면 좋겠어.



저 자 | 마키타 신지 대 상 | 초등학생 추천인 | 태장초 신하은

틀려도 괜찮아

학교에서 발표할 때면 떨리고 자신이 없었어. 틀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어. "처음부터 멋진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야. 처음부터 맞는 답을 말할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책을 읽고 내 마음에 드는 말이야.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하기가 무서워질 것 같아. 떨려도, 틀려도 자꾸자꾸 말하면 정답을 말할수 있고, 언젠가는 멋진 말도 할수 있을 거야. 나한테 용기와 자신감이 주는 책이야.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어.



저 자 | 오스카 와일드 대 상 | 초등학생 추천인 | 태장초 이소예

행복한 왕자

도시 가운데 보석으로 장식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우뚝 서 있어. 행복한 왕자는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여서 너무 슬펐어. 행복한 왕자는 동상에 내려앉은 제비에게 부탁하여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 주었지. 제비는 친구들과 같이 가야 했지만, 왕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 왕자의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성냥 파는 소녀에게 주고 제비는 죽을 때까지 왕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다 내어 줄 수 있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행복한 왕자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왕자를 도와주는 제비,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행복한 왕자와 제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감동적인 책이야.



슬기로운 취미생활, 책으로 시작해요!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사서 안선영,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김세희



□어린이



저 자 | 에즈기 버크 출판사 | 리스컴 발행년 | 2021

나는 요가가 좋아요

몸의 균형과 마음의 균형을 함께 잡아주는 요가 배우기

요가는 아이들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길러준다. 이 책은 어린이가 따라 하기 쉬운 14가지 요가 자세를 과정별로 친절하게 알려준다. 어린이들이 요가 자세를 따라 하며 나무나 사자, 나비가 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도록 예쁜 그림과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하여 상상력은 물론 창의력도 커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근사한 습관을 알려주는 요가 동화로 마음의 균형과 함께 몸의 균형도 잡을수 있다.



저 자 | 고은정 출판사 | 철수와영희 발행년 | 2020

내가 끓이는 생일 미역국

가장 평범하면서도 틀별한 미역국 끓이기를 시작으로 요리에 도전해보자

생일날 끓여먹는 특별한 국이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미역국 끓이기를 통해 요리에 도전해보자. 고 은정 선생님은 정확한 조리방법과 조리시간을 알려주어 어린이들 이 당장 도전할 수 있게 용기를 준다. 소고기 미역국 외에도 들깨, 된 장, 꽃게 미역국까지 4가지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을 안내한다. 어 린이들과 요리를 하기 전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주고, 불, 칼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어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 자 | 로랑 모로 출판사 | 톡 발행년 | 2015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려 봐!

그리기를 좋아하는 감수성 풍부한 소년의 상상의 여정을 담은 컬러링 북

스케치북을 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상상의 나래를 펴는 소년의 여정을 따라가며 책을 읽는 어린이들의 미적영감도 차오르게 된다. 이 책은 색칠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마주칠 아름다운 광경들을 떠올리고 상상의 이미지를 종이 위에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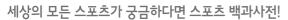
∥ 책 처방전

Q. 처방이 필요해요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보니 운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A. 『스포츠피디아』이 책을 처방합니다

축구, 야구처럼 널리 알려진 스포츠 종목부터 마라톤, 다이빙, 봅슬레이 등 60종목 이상의 스포츠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살펴보고 배워보고 싶은 종목을 골라보세요.



스포츠를 잘 아는 아이도, 잘 모르는 아이도 이 책을 보면 금방 좋아하게 될 거예요. 책장을 넘기며 알고 있던 종목뿐 아니라 다채로운 스포츠가 빚어내는 흥미로운 장면에 빠져들 겁니다. 축구, 야구부터 보치아까지 60 종목 이상의 스포츠를 즐겨 보세요!



저 자 | 애덤 스키너 출판사 | 보림 발행년 | 2021

● 이럴땐 **이러 책**

□일반/청소년



저 자 | 임이랑 출판사 | 시대인 발행년 | 2022



저 자 | 강세종 출판사 | 북하우스 발행년 | 2021



저 자 | 김혜원 출판사 | 인디고 발행년 | 2021

시바리나의 발레일기

읽다보면 발레를 배우고 싶어지는, 생활밀착형 취미 발레 이야기

우연히 TV 속의 우아한 발레리나를 보고 반한 시바가 무작정 발레를 배우게 되면서 진정한 취미 발레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시바리나의 발레일기」 마음과 열정만큼은 이미 수석 발레리나 못지않은 취미 발레인의 희로애락이 담긴 그림 에세이로 발레인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발레의 매력을 재치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식물상담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 식물 집사들을 위한 안내서

우리가 키우는 식물 대부분은 먼바다 건너, 긴 여행을 거쳐 우리에게 왔다.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 도착한 식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이 집사 에게 거는 대화에 집중해보자. 「식물상담」은 식물이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 챌 수 있도록, 식물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하우를 전 해준다.

주말의 캠핑

거창한 장비없이 도전하는 캠핑을 위하여

이 책은 주말이 되면 잠시 직장인 모드를 해제하고 자연 속 캠핑을 즐기는 사람의 이야기다. 짐을 싸고 다시 푸는 일이 정말 귀찮겠지만 그 귀찮음을 견디게 해주는 캠핑의 낭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사계절을 온몸으로느낄 수 있는, 그 마술 같은 순간을 촘촘하게 관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캠핑에 도전해보자.



△ 책 처방전

Q. 처방이 필요해요

그냥 버려지는 잠깐의 시간들이 아까운데, 틈틈히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을까요?

A. 『디어 데일리 그림 사전』이 책을 처방합니다

사소한 시간도 소중하게 챙길 줄 아는 멋진 당신! 일상을 그림으로 기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디어 데일리 그림 사전」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하루의 흔적을 그림으로 남기다 보면 어느새 멋진 그림책 한 권이 완성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저 자 | 최유진 출판사 | 예문아카이브 발행년 | 2021

내 하루를 직접 그릴 수 있다!

일상의 순간들을 따라 그려볼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품과 장면들을 담은 도안이 수록되어 있다. 책 속의 그림을 따라 그리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일상을 쉽고 재미있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팁으로 담고 있어 부담없이 그림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체능 계열

꿈을 현실로! 독서를 통해 꿈을 찾아 디자인해보자!

꿈을 만들어가는 진로독서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복은솔

청소년을 위한 보컬 트레이닝 수업

차태휘 | 지노 | 2021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첫 디딤돌

요즘 가수나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은 청소년이 읽기에 어려운 전공서뿐이었다. 이에 실용음악을 전공한 저자는 청소년 이 노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펴냈다. 실제로 노래를 가르쳐보고 학생들과 소통해보며 쌓은 방법으로 음악의 이론부터 실제 연습 방법까지 대화 형식으로 쉽 게 풀어냈다.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자 발걸음을 떼는 청소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운동선수였습니다

윤여원 | 엔북 | 2021

운동선수로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하여

대중들은 성공한 운동선수들을 기억한다. 성공한 운동선수란 보통 큰 대회에서 메달을 따 매스컴을 탄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소수이며, 성공한 선수 못지 않게 노력했을 수많은 운동선수가 있다. 그들은 운동선수 생활 이후 어떻게 지낼까? 저 자는 운동선수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해 본인이 겪었던 학생 운동선수 시절과 폭력이라는 부조리함, 그리고 운동선수 생활 이후의 삶 등에 대해 진솔하게 담아냈다.

무용가 어떻게 되었을까?

박선경 | 캠퍼스멘토 | 2021

예비 무용가를 위해 현 무용가가 전하는 경험담과 조언

무용가라는 직업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이 책은 무용가에 대한 기본정보, 자격 요건, 장단점을 담아 무용가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현대무용가, 팝핀댄서, 발레리나, 댄스스포츠 선수, 한국무용가, 스트릿댄서 총 6명의 무용가가 무대에 서기까지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을 전한다.





스포츠 마케터로 산다는 것

롸이팅 브로 | 하모니북 | 2022

스포츠 마케터에 대한 진짜 이야기

스포츠에서 팀 구단의 브랜드 마케팅, 팬서비스, 선수 복지, 팀 성적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모든 것 을 다루는 직업이 바로 스포츠 마케터다. 이 책은 좋아 하는 야구팀의 패배를 보며 자신이 팀을 바꿔보겠다는



포부로 스포츠 마케터의 길을 걸어간 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스포츠 산업의 조직문화부터 스포츠 마케터의 다양한 업무 이야기 등을 통해 스포츠 마케터로서 의 삶을 들여다보자.



마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뷰티 전문가

김승아 | 토크쇼 | 2021

마음을 보듬어주는 뷰티전문가

뷰티 전문가는 외적인 면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어줌으로써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보듬어주는 직업이다. 특수분장 및 방송 메이크업으로 시작해 뷰티 분야 강사까지 25년 동안 뷰티 업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뷰티 전문가의 종류. 뷰티 전문가가 되는 방법 그리고 뷰티에 관한 정보 등을 전해준다.

만화 그리는 법 - 당신도 만화가가 될 수 있다!

소복이 | 유유 | 2021

만화는 누구나 그릴 수 있다

만화가가 되기 위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 소복이 작가는 최근에 출판된 그림 책 「왜 우니?」, 「엄마 말고, 이모가 해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만화책과 그림책을 펴낸 만화가이다. 저자는 만화를 그리는 법에 대해 '그냥' 그리면 된다고 하면서도 이내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제시해준다. 만화가로서의 이야기와 더불

世帯コスト世

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도 실려있기 때문에, 만화가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교과서 속 책이야기

교과역계 추천도서

초등 1~2학년 국어 & 수학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이노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노보형

한 마리 여우

케이트 리드 | 북극곰 | 2021



숫자로 만드는 스릴러 그림책

어떻게 하면 숫자 세기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1에서 시작되는 배고픈 여우의 이야기는 암탉 세 마리를 보며 군침을 흘리며 전개된다. 숫자로 풀어내는 이 이야기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

고, 어떤 장면에서는 아이들의 유쾌한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반전 있는 스토리와 강렬한 색감의 콜라주, 프린팅 기법 등을 혼합한 예술적인 그림이 매력적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독후활동을 더할 수 있어 더욱 신나는 책이다.



학교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12가지 이유

노은주 | 단비어린이 | 2020

학교 가기 싫은 아이를 위한 재미있는 학교 이야기

초등학생이라고 학교가 다 좋기만 할 수는 없다.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하나하나 생동감있게 이야기 해주는 주인공은 사실은 학교가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지 알려준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소하지만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 재미있게 알려주는 이 책은 예비초등학생에게는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아직도 학교가 익숙하지 않은 초등 저학년 아이에게는 훌륭한 학교생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분야	단원명	서 명	저자명	출판사	발행년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	딴 생각 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요	서보현	상상스쿨	2020
	재미있는 ㄱㄴㄷ	어서 오세요! ㄱㄴㄷ 뷔페	서보현 성: 최경식 위: 최경	위즈덤하우스	2020
	다 함께 아야어여	말놀이 동시집	 최승호	비룡소	2020
1학년			이주희	개암나무	2020
국어	다정하게 인사해요	인사는 우리를 즐겁게 해요	소피 비어	 상수리	2021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	<u></u> 안미연	상상스쿨	2020
		꼬마 시인의 하루	 장혜진	북극곰	2021
	생각을 나타내요		 백나영	변현 상상스쿨	2022
	-	한 마리 여우	케이트 리드	상상스쿨 위즈덤하우스 비룡소 개암나무 상수리 상상스쿨 북극곰 리틀씨앤톡 북극곰 길뱃어린이 시원주니어 우리교육 북극곰 사파리 걸음동무 국민서관 까미 창조와지식 루덴스미디어 팜파스 단비어린이 천개의 바람 크레용하우스 고래가그랬어 바둑이하우스 꿈터 한림출판사 상상스쿨 씨드북(주) 씨드북(주) 씨드북(주)	2021
	07717101 4	길어도 너무 긴	 강정연		2021
	9까지의 수	백만 개의 점이 만든 기적 스벤 볼커		시원주니어	2020
1학년 수학				우리교육	2021
TH	여러 가지 모양		요안나 비에야크	북극곰	2021
	 덧셈과 뺄셈		조니 막스	사파리	2020
	비교하기	크기 비교와 측정	 리잔 플랫	걸음동무	2020
	• -		 장영복	국민서관	2022
	시를 즐겨요	 그래 맞다	 권오봉	까미	2021
			 김연아	 창조와지식	2021
	자신 있게 말해요	발표력 키우기	 운노 미호	루덴스미디어	2020
			<u></u> 박선희	팜파스	2021
		학교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12가지 이유	노은주	단비어린이	2020
		맑음이와 여우 할머니	 윤여림	천개의 바람	2020
2학년 국어	마음을 나누어요	백만 개의 점이 만든 기적 스벤 볼커 개미핥기를 구하는 딱 1가지 방법 맥스 잭슨 에셈이나나 요안나 비에야? "뺄셈 셜록 본즈와 함께하는 덧셈 뺄셈 수학 추리 모험 조니 막스 라기 크기 비교와 측정 리잔 플랫 고양이 걸 씨 장영복 그래 맞다 권오봉 고양이 수염 동시집 김연아 기막해요 발표력 키우기 운노 미호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너무 힘들어! 박선희 학교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12가지 이유 노은주 맑음이와 여우 할머니 윤여림 마음이 들리는 마법 이어폰 최명서 역마 말고, 이모가 해주는 이야기 소복이 두이, 뚜우 찰리 팔리 김지연	 최명서	크레용하우스	2021
701		엄마 말고, 이모가 해주는 이야기	소복이	고래가그랬어	2021
		뚜이, 뚜우	전오봉 77 김연아 충 경우도 미호 특 박선희 표 보신의 조 경명서 그 조 경우이 교 참리 팔리 법 기계연 기계연 급 기계연 급 기계연 급 기계연 급 기계연 급 기계연 중 기계연 기계연 중 기계연 기계연 중 기계연 기계연 중 기계연 기계연 중 기계연 기계연 중 기계연 기계연 중 기계연 기계연 중 기	바둑이하우스	2020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걱정 삼킨 학교	 김지연	 꿈터	2020
	-11- 0 -11-1-1	나한테 말해봐!	무라카미 시이코	한림출판사	2020
	나는 사담을 생각해요	내 말 좀 들어 주세요, 제발	하인츠 야니쉬	상상스쿨	2020
		- 초조함 공장	<u> </u>	씨드북(주)	2020
	상상의 일개들 퍼요	작은 우리	다니엘라 쿤켈	씨드북(주)	2020
	세 자리 수	그림으로 배우는 초등 수학 개념: 초 1~2학년	정가영	 경향PB	2022
	길이 재기	리안의 수학 모험 11: 길이	위두커뮤티케이션즈편집부	위드커뮤니케이션즈	2020
2학년 수학	분류하기	아기 염소는 경우의 수로 늑대를 이겼어	 고자현	뭉치	2020
	고세	브레인 부스터: 곱셈	페니 웜즈	블루무스어린이	2021
	곱셈	 떡장수 할머니와 호랑이는 구구단을 몰라	이안	뭉치	2020

● 책 읽는 스승 릴레이: 예순 번째



인정받지 못한 그들의 언어, 「**웅크린 말들**」

운산고등학교 김진영 선생님

2017년 판 '난쏘공'이라 불린 책

"내가 '난장이'를 쓸 당시엔 30년 뒤에도 읽힐 거라곤 상상 못했지.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래 읽힐지, 나로선 알 수 없어. 다만 확실한 건 세상이 지금 상태로 가면 깜깜하다는 거, 그래서 미래 아이들이 여전 히 이 책을 읽으며 눈물지을지도 모른다는 거, 내 걱정은 그거야."

2007년 9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이 100만부를 찍었을 때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조세희씨가 한 말이다. 그는 여느 작가와는 달리 '난쏘공'이 안 읽히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하



고 있다. '난쏘공'은 1970년대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장이' 일가(一家)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근대화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소설을 읽으며 현대 한국 사회가 있기 위해 겪어온 통증을 알고 이해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통증을 앓고 있다. 책 「웅크린 말들」은 5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바뀌지 않은, 또는 다른 형태와 범주를 뒤집어 쓴 한(恨)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갈 곳 없는 태백 폐광 광부들의 삶을 다룬 1부 '석탄'을 시작으로 대기업 에어컨 수리 기사, 대부 업체 콜센터 직원, 이주 노동자, 귀화를 소망하는 이민자,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성소수자, 해군기지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마지막 17부 세월호 사건을 다

룬 '세월'...까지 멀리는 2000년 초반부터 가까이는 책이 나오기 직전인 201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외면했던, 누군가가 외면시키려 했던, 그러나 결코 외면받고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삶들이 담겨 있다.

어느 시대에나 부조리함은 있다. 억압과 좌절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에 따른 '계층'은 부정할 수 없는 단어이다. '난쏘공'의 '낙원구 행복동'이 반어적인 지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가 인간의 기본권조차 지켜주지 못하여,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혀서는 안 된다.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 서로 보완하며 돌아가는 톱니바퀴 형태가 아닌, 특정 계층의 삶이 다른 계층의 눈물과 땀을 바탕으로 존립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나 역시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생각했다. 지긋지긋한 자본의 굴레에서 금수저들을 욕하며 때로는 지향하며 패배한 삶은 아니나 그닥 나은 삶도 되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나아질 희망보다는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비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곤 했다. 하지만 내 삶은 최저 아래에 있는 ''아무것'보다 아무것도 아니'(256쪽)었던 그들의 삶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아직도 이 사회는 '난장이'들이 많았고 그들이 있어서 우리의 키는 상대적으로 클 뿐이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들어오는 열차 사이에 끼어 죽은 젊은이나, 붕괴된 아파트 벽면에 깔려 아직 몇 주째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책 속의 '난장이'의 삶과 그들의 '웅크린 말들'을 들여다보기 아프고 힘들었다. 그리고 그런 삶과 말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산 나 자신 스스로가 창피해서, 이 책은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메마른 다큐에 문학의 숨결이 붙다

언어는 거울이면서 거짓이다. 삶을 비추기도 하지만, 삶을 비틀기도 한다. 삶과 조응하기도 하지만, 삶을 조롱하기도 한다. 한(韓)국어가 언어의 표준을 자임할 때, 표준에서 배제된 언어는 한(恨)국어가 된다. 한(韓)국이 국민의 표준을 지정할 때, 표준에 끼지 못한 사람은 한(恨)국에 산다. (7쪽)

특히 이문영의 「웅크린 말들」은 '난장이'들의 한(恨)서린 언어를 정리한 '한(恨)국어사전' 형태를 빌려 그들의 삶을 더욱 사실적이고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다. 평생 광부로 살다 진폐증을 얻은 광부들이 자신의 처지를 자초하는 비유어인 '산업폐기물', 수리 기사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묻지만 때로는 그들을 사지로까지 내모는 전화를 일컫는 '해피콜', 호출돼야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뜻하는 은어 '호출형' 등등. 준말, 비유, 은어, 동음이의어 등으로 파생되어 쓰이는 그들만의 한(恨)국어들을 사전 형식으로 정의하며 한(恨)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 이상, 주인들의 삶만큼이나 매몰되어 있고 외면받는 그

● 책 읽는 스승 릴레이: 예순 번째

단어들을 작가는 한(韓)국어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다.

삶과 공존하는 언어에 대한 작가의 남다른 애정과 시선은 본래 이 책이 지닌 다큐라는 장르를 벗어나 문학의 경계를 오가는 언어적 수사력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의탁 없는 우주에서 그를 지구로 끌어당기던 중력이 힘을 빼며 늘어지고 있었다. 그리워서 떠나지 못한 그에게 더는 그리워할 곳이 없었다. (213쪽)

강남의 노숙자들의 삶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중력도 지켜지지 못했다.

채울 것 없는 이력서를 쓰는 일은 취조하는 형사 앞에서 자술서를 쓰는 것처럼 잔인했다. 이력서의 여백 앞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하얗게 지워질 때 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됐다. 야윈 이력서를 쓰고 찢을 때마다 살찐 이력서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는 자꾸 마른 뼈가 돼 갔다. (223쪽)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독사한 젊은이의 꿈은 해당 챕터의 이름처럼 '백골'화 되었다.

불빛 드문 수평의 땅에 쇠를 심어 불빛 흥청한 수직의 도시는 번쩍일 수 있었다. 이남우와, 덕촌 할 매와, 김무출과, 골안의 눈물을 빨아먹으며 수직은 키가 자라고 덩치가 커졌다. 우리의 전선(電線)은 그들의 전선(戰線)에서 돋았다. (351쪽)

삶의 터전에 쐐기처럼 박힌 송전탑에 반대한 밀양 주민들의 삶은 전쟁이었고, 포탄과 포성없는 전쟁은 밤 낮 귀신불처럼 전깃불만 번쩍였다.

다큐는 사실적이다. 그러나 자칫 건조하다. 이문영은 그 건조한 수묵화같은 다큐적 삶의 모습에 자신만의 문학성 짙은 감각적 언어로 색을 입혔다. 부분 부분만 놓고 보면 시나 소설의 일부라고 보기에 손색이 없다. 때로는 예리하게 날 선 서늘한 칼질같은, 때로는 먹먹하고 아련한 무거운 눌림의 쇳덩이같은, 때로는 빛나 는 영롱한 아름다움을 품은 눈물같은 그 언어들은 기존에 있던 이런 책들과 「웅크린 말들」을 차별화한다.

우리의 감수성을 점검할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눈앞의 보자기만 한 시간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지닌 감수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가늠될 것만 같다." (황현산의 「밤이 선생이다」, 12쪽)

아직 이야기되지 못한, 말해지지 않은 '웅크린 말들'이 많다. 아동학대, 용산참사, 하청에 재하청으로 자꾸 깎여 나가기만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과 권리 등등. 단어는 모여 문장을 이루고 문장은 모여 이야기를 이룬다. 이야기는 모여 삶이 된다. 반대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정규직'과 구분하며 쓸 수밖에 없는 것, 세월호는 '사고'가 아니라 '참사'라는 것을 구분 짓고 인지해야 대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017년 판 '난쏘공'같은 다큐를 문학적 언어로 버무린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가진 현재의 폭을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좀 더 희망적인 내일을 기대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주변의 '웅크린 말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공감하여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이상 '난장이'도 그들의 '웅크린 말'도 역사의 뒤안길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 들이 되길 희망해 본다.

생각 TOUCH, 변화를 주도하는 독서교육

동두천신천초등학교 이은정 사서교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미래인재 핵심역량으로 4C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업능력)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동두천신천초등학교 '글빛마루터 도서관'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학교도서관 운영과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실천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독서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변화 주도형 독서활동 및 학생중심 독서수업을 운영하여 독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학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독서교육을 위하여 학교교육과 교과교육과정, 학교도서관을 연계하고, 교육가족 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활동 프로그램을 실천하였다. 생각·관찰, 탐구 기반의 읽기·말하기·듣기·쓰기 (Thinking, 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의 언어활동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육함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따른 실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학교도서관 중심의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변화주도형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독서프로그램으로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 개하는 '북큐레이션' 운영
- 다양한 주제의 책 나라를 여행하는 '북패스포트' 운영으로 독서상 시상



-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책을 읽는 '책따라, 길따라!, '교육가족(학생, 교직원, 학부모)이 함께 읽는 그림책 프로젝트'
- 교육 가족(학부모, 교장선생님, 학생)의 책 읽어주기 프로젝트인 '나도, 전기수!'
- 전교생이 함께 하는 독서강화 주간, 교실과 도서관이 함께 하는 독서강화주간
-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북페스티벌 운영, 저작권 교육 실시
- 독서캠프(주제:책 읽고 표현하기).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국어의 독서 단원에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네 가지특별한 방법을 도입하여 재구성하였다.

- 1단계: '지역 서점 나들이'로 함께 읽을 책을 학 생과 함께 선정
- 2단계: 함께 읽을 책과 관련 있는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책과 미디어 자료(디지털 리터러 시)를 연계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교과와 의 재구성 방법과 차별화



- **3단계**: 깊이 있는 독서를 위해 '질문하며 책 읽는 방법'과 논리적으로 글쓰기 방법인 오레오맵 (OREO Map)을 적용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 4단계: 함께 읽은 책의 저자를 초청하여 책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독서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여 사고의 나눔과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계기 마련

교육 공동체 독서역량 강화

교육 가족의 독서와 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사, 학부모, 학생동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 관 련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직원 및 학생, 학부 모 동아리를 운영하여 독서 활동 생활화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중심 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독서활



동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초등학교 6년간 독서교육의 최종 목표인 '자기주도적인 독서가'의 양성으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 독서행사 보다는 관련 교육 활동을 연결하여 프로젝트로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동두천신천초등학교 도서관은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과 교육으로 학생의 배움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다양한 교육 분야와 연계하여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독서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초등교육과정 6년 동안 중등교육과정을 위한 기본을 튼튼히 다지고 진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웹툰_학교생활

्रिट्रिश्रु ठी

웹툰: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곽수현







경기교육통합도서관 서비스 운영

경기중앙교육도서관(관장 신창승)은 학생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교육도서관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기교육통합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누구나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11개 교육도서관의 자료와 통합전자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 소식을 경기교육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학교도서관 지원' 누리집을 통해 교수학습 지원자료, 학교도서관 현장지원, 학교-교육도서관 상호대차 등학교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교육통합도서관 누리집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지원 누리집

◎ 통합도서관 회원가입 (https://lib.goe.go.kr/lib)

경기교육도서관 기존 관외대출회원은 개인정보동의 및 통합회원 인증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은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경기도민인증을 받아 도서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교육통합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도서관 방문 없이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정회 원 전환이 가능하며, 가입 즉시 통합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내 학생은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https://redading.gglec.go.kr)' 계정 인증을 통해 정회원 전환이 가능하다.



정회원 전환_경기도민인증, 경기도학생인증



정회원 전환



◎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https://lib.goe.go.kr/elib) 서비스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 2,521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자책은 5명이 동시에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귀로 듣는 오디오북은 165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잡지서비스를 통해 200여종의 최신 간행물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와 언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다문화 동화구연' 사이트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구독형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러닝 콘텐츠를 확충하여 온라인 자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 누리집



다문화 동화구연 서비스

◎ 희망전자책 서비스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에서는 경기교육도서관 및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외대출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한다. '희망전자책' 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청한 전자책을 선정, 구입하여 신속하게 전자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희망도서신청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희망전자책은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당 월별 1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구입한 전자책은 공지사항과 SM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희망전자책 서비스



희망전자책 서비스



우리는 여기 존재 한다. 바로 지금. 이게 얼마나 경탄스로운 일인지 잊기 쉽다.

사샤 세이건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 중에서

가로세로 낱말 퀴즈 정답 <<<

		보			연	구	소	
돈	키	호	테		예		행	
			<u> </u>	페	인		젃	
룸			토					
메	타	버	스			재		노
0			테			테	스	트
트		일	론	머	스	크		르
	회	상			크			담
			<u>∃</u>	렘	린	궁	전	

경기교육도서관 - 교육지원청 - 학교도서관 협력체계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수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평택교육도서관 평택교육지원청 경기광주교육도서관 광주하남, 양평교육지원청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여주, 이천교육지원청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포천교육도서관 경기김포교육도서관 김포, 고양교육지원청 안양과천, 광명, 부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성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의정부, 파주교육지원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안산, 안성,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





학생중심 책읽는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교육도서관이 함께 합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031)240-4031	경기포천교육도서관	031)531-8751	경기화성교육도서관	031)369-5731
경기평택교육도서관	031)667-4207	경기김포교육도서관	031)998-3538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031)827-9514
경기광주교육도서관	031)768-6923	경기과천교육도서관	02)3677-0361	경기평생교육학습관	031)259-1045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031)882-1066	경기성남교육도서관	031)730-3564		





경기교육도서관 사서들이 만드는 **학생중심 독서정보지**



